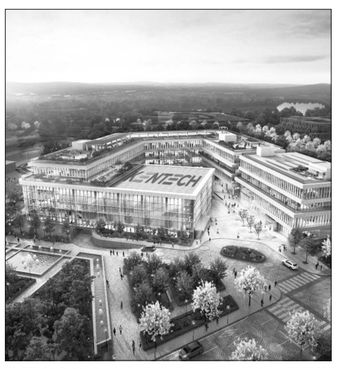
나주, 켄텍 부설 '에너지영재교육원' 설립 한다



전국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글로벌 에너지 수도' 도약 위한 교육 기반 마련
초·중학생 대상 국내 최초·유일 프로그램 운영

나주시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부설 에너지영재교육원 설립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며, 미래 에너지와 첨단산업을 이끌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최근 이사회를 개최, 켄텍 부설 에너지영재교육원 설치와 운영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에너지영재교육원은 나주시에 거주하거나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4~6학년)과 중학생(1~3학년)을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최고 수준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에너지 분야 특화 영재교육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원은 미래 에너지 분야 핵심 인재를 대학이 직접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우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인재 유출 방지와 소외지역 교육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에너지영재교육원 설립은 나주 시민들의 오랜 요구를 바탕으로 나주시의회의 발의와 나주시의 주도하에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추진됐으며, 전남도교육청 승인과 나주교육지원청, 한국전력공사, 관계 부처의 협조를 거쳐 올해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나주시는 에너지영재교육원 운영 예산과 관련해 한국전력과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동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나주시, 전남도교육청, 나주교육지원청은 교육원 설립과 운영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으며, 이번 사업은 나주시 교육특구 사업과 나주교육지원청의 나주교육 빅뱅 프로젝트와도 연계해 추진된다.

에너지영재교육원은 향후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비롯해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설명회, 공개 시범 수업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학생 선발은 올해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영재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교양과 기초, 탐구 과정 등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향후 전남도 전역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에너지영재교육원은 나주가 글로벌 에너지 수도로 도약하는 데 핵심이 될 인재 양성의 출발점이다"며 "한국에너지공과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장흥 빠삐용Zip, '스토리 체험형' 문화공간 자리매김

빠삐용zip 콘텐츠페어

국내 드라마·영화 핵심 촬영지 'K-콘텐츠' 주목
옛 교도소 배경…재미·교육·문화적 가치 입증

옛 장흥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 '빠삐용Zip(빠삐용집)'이 최근 국내 주요 드라마와 영화의 핵심 촬영지로 주목받으며 K-콘텐츠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장흥군에 따르면 올해 들어 1월 한 달간 총 7개의 촬영팀이 장흥 빠삐용Zip에서 현장 촬영과 사전 답사를 진행했다.

이는 장흥 빠삐용Zip의 콘텐츠 제작 현장으로서 관심을 입증했다.

빠삐용Zip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물 교도소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공간으로, 제작진과 배우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현실감과 몰입감을 제공한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화제의 중심에 있는 드라마 '경도를 기다리며', '자백의 대가',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 '조각도시'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이곳을 배경으로 촬영을 마쳤거나 진행 중에 있다.

특히 군은 단순히 촬영 장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품 종영 후에도 관람객들이 극 중 장면과 감동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스토리 체험형 공간'으로 운영하며 타 촬영지와의 차별성을 꾀하고 있다.

또한 시설 내 마련된 '교정 역사 전시관'은 옛 교도소의 생생한 흔적을 함께 전달하며 교육적 가치와 문화적 재미를 동시에 선사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촬영 유치 단계를 넘어, 콘텐츠IP와 연계한 지역 관광 활성화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빠삐용Zip은 촬영을 위한 일시적인 공간을 넘어, 촬영 이후에도 이야기가 계속해서 살아 숨 쉬는 장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K-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동시에 관람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선사하는 지역 대표 문화공간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함평 콩강아지농장 '우수 치유시설 인증'
군 최초…전문성·성장 가능성 등 대외적 인정

손영일 콩강아지농장 대표 부부와 반려동물 모습.

함평군 나산면 '콩강아지농장'이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심사에서 함평지역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다.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은 치유농업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경영 △인적자원 △프로그램 △시설·환경 등을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시설을 선정·인증한다.

손영일 콩강아지농장 대표는 국가공인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동물 교감 중심의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왔다.

특히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참여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치유농업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현장에서 실천해 오고 있다.

손 대표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치유농업 서비스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참여자들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치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정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인증은 함평군 치유농업의 전문성과 성장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치유농업이 지역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콩강아지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업·농촌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도 지정돼 치유농업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 추진하는 우수 농업 경영체로 주목받고 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

장성,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 구성
김한종 군수 "농가 경영 안정·식량 안보 강화"

장성군이 최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했다.

장성군이 최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위원회'를 구성했다.

운용위원회는 가격안정기금이 투명하게 관리·지급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 김한종 군수 포함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9명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8년 2월 2일까지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지역 내 주요 농·축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 도매시장 가격이 정해진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기금으로 지원해 농가 피해를 경감시킨다.

장성군은 지난 2016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일찌감치 기금 운용 준비를 마쳤지만, 이후 기금 조성 과정이 원활치 않아 시행하지 못했다.

군은 이번 운용위원회 구성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기금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행정, 관계기관,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김한종 군수는 "조례 제정 이래 10년 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성공적으로 확보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식량 안보 강화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장세일 영광군수가 최근 백수읍사무소에서 2026년 백수읍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을 진행했다.

영광, 노인일자리 예산 128억원 투입
2859개 제공…역대 최대 규모

영광군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건강한 사회참여를 위해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추진한다.

군은 예산 128억원을 투입, 37개 사업을 통해 2859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는 전년 대비 예산을 23억원 증액한 것으로, 참여 인원도 478명 늘어났다.

올해 사업은 단순한 공공형 일자리에서 벗어나 어르신 개개인의 역량과 경험을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로 구성됐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영광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청람노인복지센터 3개 수행기관과 각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운영된다.

참여자들은 발대식과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분야별로 △공익형 월 29만원 △역량활용사업 월 63만4000원 △공동체사업단 연 267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군 가정행복과장은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일자리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경제적 안정은 물론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며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

고흥, 기후변화 대비 노후 방조제 보수
동일면 봉남방조제 등에 사업비 74억 투입

고흥군은 농경지 침수 예방과 자연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신규지구 3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노후화로 기능이 저하된 방조제의 제방을 보강하고, 배수갑문과 부속시설을 개보수한다. 이를 통해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시설물 붕괴와 파손을 예방하고, 해수 유입으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지구는 대서면 송강 1·2 방조제와 동일면 봉남방조제다.

이들 시설은 축조된 지 50여년이 지나 사석 이탈과 누수 현상이 심각하며, 안전점검에서 D등급 판정을 받는 등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특히 태풍이나 폭우 시 해수 유입으로 인한 농경지 염해 피해 우려가 커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았던 곳이다.

군은 그동안 노후 방조제의 기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에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국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74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올해 상반기 중 신규지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설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신규지구 선정으로 상습 재해 위험 지역의 불안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